

남원시, 공약사업 추진율 85%

지리산 헬스 뷰티 타운민자유치·문화도시 활성화 등에 가시적 성과

남원시(시장 이환주)는 14일 시청 회의실에서 해당 실과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6기 공약사업 추진상황 보고회를 가졌다.

이환주 시장을 비롯한 부시장, 국장, 해당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보고 회에서는 5개분야 30개 공약사업을 점검하고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은 박차를 가하고 장기사업에 대한 원인분석과 향후대책을 논의하며, 추진률 및 이행도에 대해 심도 있게 점검하는 자리였다.

민선6기 5대 분야 30개 공약사업의 추진사항을 점검한 결과, 임기 내 목표대비 85%의 높은 추진률을 보이고 있으며, 완료 4개(14%), 이행후 계속추진 11개(37%), 정상추진 13개(43%), 장기추진 2개(6%) 사업으로 분류되

며, 28개 사업이 정상추진 되고 있다.

현재까지 완료된 사업은 △지리산 헬스 뷰티타운민자유치 △문화도시 활성화 △합파우 예술촌 △행복한 혁신교육 특구 4개사업이며, 이행후계속 추진 및 정상추진사업 중 귀농귀촌안정적 정착, 요천100리순길조성, 공공상수도보급확대 등에서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공약사업 배심원제 운영으로 주민에게 직접 심의·평가받고 홈페이지지문영과 공약지도도를 통해 시민들이 공약사업 추진상황을 투명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개시하는 등 공약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중시하고 시민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다.

민선6기 4년이 되는 올해에는 30개 공약사업 선택과 집중을 통해 완료도를 더욱더 높여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이번 점검을 토대로 추진률 저조 사업에 대해 더욱 노력을 기울여 시민과의 약속을 성실히 지키겠다 하였다.

남원시는 공약관리관리규정 운영, 시 홈페이지(www.namwon.go.kr) 통한 추진상황 업데이트, 시민배심원제 운영 등을 통해 공약 사항 이행체계를 완성해 나가고 있다.

또한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최우수기관 및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2년 연속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대외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남원=유영철 기자

임실군, 6차산업화 전문가 양성교육 전개

식품 위생론·식품 가공·기계 이론·조작 등

임실군의 6차산업화 전문가 양성교육이 농업인들의 큰 관심 속에 뜨겁게 전개되고 있다.

임실군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수입 농산물 개방확대 등 위기에 처한 농촌문제 해결사로서 6차산업화 정책을 전면에 내세워 강력하게 추진 중이다.

14일 군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농식품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가공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의 일환으로 식품기능사반을 운영 중이다.

교육대상자는 농산물 가공에 관심있는 농업인과 소규모 식품가공업체 관계자 40명으로, 20차례에 걸친 전문가 양성교육을 받게 된다.

교육내용은 농식품의 6차산업화에 필요한 식품화학과 식품위생론, 식품가공 및 기계이론을 비롯해 기계조작

방법과 농수축산물가공과 제조, 검사에 이은 실습 등이다.

이번 교육은 강화되는 위생법규를 제대로 알고,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상품개발로 6차 산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교육을 받게 되면 국가자격증인 식품가공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데 용이해진다.

때문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모집 대상자보다 다소 많은 인원이 몰리면서 그 열기가 뜨거웠다는 게 군청 관계자의 전언이다.

식품가공을 통한 6차 산업이 불안정한 농산물 가격과 제값받기 어려운 농가의 현실을 타개할 돌파구가 되고 있는 셈이다.

임실군이 지역농산물을 가공부터 체

협관까지 연계하는 6차 산업 활성화에 4년간 155억 원을 집중 투입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배농사를 지으며 교육에 참가한 이영란(관촌면 50세)씨는 "배를 이용한 제품개발에 관심이 있어 식품관련 자격증을 따고 싶었다"며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자격증 교육을 받고, 가공센터를 이용해 제품을 만들어 볼 기회까지 생겨서 너무 좋다"고 말했다.

현재 군은 모든 농업인들이 이용 가능한 농산물가공센터를 운영 중이다.

센터는 400㎡ 규모의 제조실에 동결 건조기, 농축기, 포장기 등 36종 43대의 가공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블루베리 시럽 등 20개 품목을 생산하고 있다.

교육에 참여한 농업인들도 센터에서 농산물 가공과 관련한 실습을 받게 된다.

/임실=진홍영 기자

덕유산 국립공원, 산불 조심기간 탐방로 통제

3월 2일 ~ 4월 30일 까지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허영범)는 봄철 건조기를 앞두고 3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를 "2017년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설정하고, 5개 탐방로(19.6km)를 제외한 12개 탐방로(63.5km)를 통제한다고 밝혔

다.

다음달 2일부터 자연자원보호 및 산불방지를 위하여 통제되는 탐방로는 향적봉~동엽령~남덕유산~영각탐방지원센터 등 모두 12개 구간이며, 개방되는 탐방로는 설천봉~향적봉(0.6km), 구천동탐방지원센터~백련사~향적봉(8.5km), 덕유대자연학습장~안

삼대(3.3km), 황점~삿갓골재(3.4km), 서창탐방지원센터~안국사(3.8km) 5개 구간이다.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 탐방시설과장 위중원은 봄철 국립공원 산행 시 사전에 통제구간을 확인한 후 개방된 탐방로를 이용하고, 산불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인화물질 반입·흡연·소각행위 등은 일절 금지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지리산남원 바래봉 눈꽃축제 성료

얼음썰매장·이글루 체험장·농·특산물 판매장 등 운영

'제6회 지리산남원 바래봉 눈꽃 축제'가 지난 12월 31일 개장하여 4만여명의 관광객이 다녀간 가운데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이번 눈꽃축제는 눈썰매, 얼음썰매장, 이글루 체험장, 농·특산물 판매장, 먹거리장터, 연날리기대회 등을 운영하여 눈꽃축제장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겨울 체험을 제공하였다.

특히, 올해는 지리산 고랭지 농·특산물 홍보에 주력하여 운영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 가공식품 등을 홍보 및 판매하여 관광객들에게 큰 호응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직간접적인 효과를 이루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행사기간 중 전국적으로 A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정경지역

남원을 만들기 위하여 주최측인 운봉여행회는 자체적인 방역초소를 운영하고 방역차량에 대해서는 입장료를 할인 제공하였다.

행사 관계자는 "올해는 온난화로 눈이 많이 내리지 않아 눈썰매 등 조형물이 녹아내려 내방객의 불거리 제공에 아쉬움을 안겨졌지만, 내년에는 더 알찬 축제를 준비해 눈꽃축제장을 찾은 관광객에게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운봉읍은 매년 '지리산 바래봉 눈꽃축제'와 '지리산 바래봉 대박축제'를 개최하여 매년 40만명 이상이 찾는 관광명소로 발돋움하고 있으며 "지리산권 관광중심 도시 남원"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지역 소식통

고창읍 시가지, 공영 주차장 조성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고창읍 시가지의 부족한 주차 공간을 확보해 주민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공영주차장을 조성한다.

군은 올해 말까지 총 사업비 68억7000만원을 들여 전체부지 16,583㎡에 387면의 규모로 공영주차장 5곳을 조성한다고 14일 전했다.

고창읍 월곡지하차도 앞, 새마을공원 주차장은 오는 3월 착공해 상반기 준공 예정이며 고창터미널 앞 화물차오지, 중앙가구 앞, 미풍정식당 일원 공영주차장도 올해 말까지 준공할 계획이다.

특히, 주차장 내에 조경수를 식재하고 녹색쉼터공간을 조성해 도시미관도 개선하면서 주민 휴식공간을 제공해 아름답고 청정한 명품고창 이미지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고창읍 일원에 공영주차장 조성이 완료되면 불법 주정차 감소와 이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는 물론 원활한 교통 흐름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고창읍 시가지가 늘어나는 차량에 비해 주차장이 부족해 불법주차와 이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함이 컸다"며 "아울러 고창읍 소재지권 내 활용 계획이 없는 토지에 군에서 주차장 조성을 위해 부지매입을 계획 중에 있으며 주민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도심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임실군, 여성문화 체험교실 운영

임실군은 건전한 여가활동 및 문화체험으로 여성 삶의 질 향상을 위해 14일부터 내달 23일까지 여성문화 체험교실을 운영한다.

이번 체험교실은 선호도와 실생활 활용도가 높은 법진공예, 킷공예, 도자기공예 3개 과목 110여명을 대상으로 군청사와 관촌 도화지 공예문화원에서 진행된다.

도시지역보다 문화활동을 접할 기회가 적은 농촌 여성들이 농간기를 맞아 취미생활을 즐기며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성석 주민복지과장은 "양성평등 시대에 여성들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며 "여성들이 지역의 변화와 발전을 주도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여성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노래교실 운영, 여성단체 역량강화사업, 여성단체 지도자 워크숍, 여성취업설계사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고창군, 건강 100세 시대 생활체육 활성화

고창군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생활체육의 선순환구조 정착과 건강 100세 시대를 맞아 국민 체력향상에 선도적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고창군 생활체육지도자는 지역 내에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지도하는 풀뿌리 체육의 파수꾼으로 현재 11명의 지도자가 활동하고 있다.

생활체육지도자들은 마을회관, 경로당, 복지시설, 학교, 소외계층 시설 등 30여 곳을 찾아가 라인댄스, 실버체조, 치매예방체조, 배드민턴, 축구, 볼링 등 10개 종목 5,000여명의 군민들에게 현장 지도를 진행하고 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은 군민의 건전한 여가생활과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국민체육진흥공단과 고창군이 후원하고 고창군체육회에서 지도자를 배치해 무료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초등학교에서 어르신들까지 모든 연령층의 생활체육 지도를 비롯해 심판으로 대회운영 참여 등 전방위적으로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치즈

벨기에 출신 지정된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